

#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적응 요인에 대한 연구

Adjustment Factors for Family Life of Multi Cultural Family Couples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 전공

조교수 강 기 정\*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 전공

강 사 정 천 석\*\*

Dep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ekseok Univ.

*Assistant Professor:* Kang, Ki-Jung

Dep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ekseok Univ.

*lecturer:* Chung, Chun-Seok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factors of family life adjustment in mixed-culture families through a focus group and individual interviews with nine mixed-culture couples eighteen people who live in city C.

First, the reason that women of other cultures wants to marry Korean men is because they find it a good opportunity, as they expect that Korean husbands will take responsibility of their family. On the other hand, Korean men also expect that they would have some similarities to each other. Also, in southeastern Asian men have more freedom than women to choose an international marriage in Southeastern Asia.

Second, mixed-culture couples in everyday life are affected by communication problems, cultural differences, natural environment, financial situation, male -dominant attitude, self-adjustment pressure, house-work rol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own country.

\* 주저자 : 강기정(kkj@bu.ac.kr)

\*\* 교신저자 : 정천석(brights2@hanmail.net)

Third, wives from other cultures ask for social support to adjust in Korea and make a healthy family. These women can be important, as they have their own role in the family even though they may be far from their mother in law's strong expectation in how well she can adopt Korean culture.

Key Words : 다문화가정 부부 (couples of multi cultural families), 포커스집단 면접 (focus group interview), 가정생활 적응요인 (adjustment factors in family life), 다문화가정교육 (education for the multi cultural family), 취업안내 교육 (career guide education)

## I. 서론

국제결혼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과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과 농촌문제 등의 사회적 여건으로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14만 4,386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고, 이 중 여성이 12만 8천 명으로 88.4%를 차지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가족이란 상호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체계이다(Winton, 1995). 증가하는 국제결혼은 국내의 동질 집단 내에서 결혼성립이 용이하지 않은 집단, 즉, 결혼적령기를 넘긴 높은 연령, 낮은 학력, 초혼보다는 재혼, 그리고 낮은 경제적 수준의 남성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부부는 연령, 의사소통, 생활 문화, 경제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정천석·강기정, 2008), 이들의 경험하는 상호 관계적 특성에 따라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Bernard S. et al., 2003). 실제로 다문화가정 부부의 이혼건수가 2003년 2,164건, 2004년 3,400건, 2005년 4,278건, 2006년 6,280건, 2007년 8,82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추세이다(법무부, 2007.12).

2000년 이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노동자와 성매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주목

하거나 인권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한국염, 2006; 홍기혜, 2000; 이선주, 2006; 이혜경, 2005). 또한 서로 다른 기대와 문화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윤형숙, 2003),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해 최근 '초국가적 가족'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주여성이 세계화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주여성들이 겪게 되는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경험은 여성주의적·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요구함을 인식하고, 국내 서비스업에 취업 중인 조선족 여성의 경험을 분석하였다(이혜경 등, 2006).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 경험에서 거의 모든 남편과 시어머니들은 부인(또는 며느리)과 자신 사이에 문화적 차이, 음식의 차이, 어른에 대한 예절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부부, 부모-자녀, 고-부 관계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남편과 시어머니들이 예상했던 차이는 언어에 한정되어 있으며 언어차이로 인해 부부간 소통이 어렵고, 자녀 언어교육문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수준이다(김이선 외, 2006). 즉 다문화가정 부부는 개인과 부부의 특성에 따라 적응유형과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부부 대상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가정생활의 적응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부부가 한국사회에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안과 서비스 지원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가정 부부의 적응 모델에 따른 적응 요인

다문화가정은 1990년대 중반 이후는 필리핀, 태국, 몽골 여성의 결혼이주가 늘어나고,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러시아 여성의 결혼이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중국국적 출신 여성이 28,695건으로 전체 결혼이주 외국여성의 66.2%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7). 2008년 12월 현재 다문화가정의 국적별 현황<sup>1)</sup>을 보면, 중국(한국계 포함)이 56.1%, 베트남이 21.0%, 필리핀이 4.7%, 일본이 4.5%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107,331명, 남성 14,694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88.0%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8).

그레브(Graves, 1967)는 집단수준의 현상으로서의 문화적응(acculturation)과 개인수준의 현상으로서의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을 구분하였다.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 함은 새로운 문화를 접한 결과 나타난 집단의 문화적 변화를 말하고,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과 적응(adaptation)은 개인의 심리

에 일어나는 변화를 일컫는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는 용어를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적응이란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이라 할 수 있으며(Lazarus, 1976), 사회학적으로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기대, 요구 등에 개인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변시민, 1988).

본고에서는 그로브와 토비온(Grove & Torbiom, 1985), 베리(Berry, 2005)의 적응 모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로브(Grove)와 토비온(Torbiom)은 적응이 잘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숙련된 사람이 갑자기 익숙지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될 경우, 특히 자신의 이전의 환경과 현격히 대조되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개념 구성물의 4단계 변화를 U자형의 포물선으로 나타내었다. 베리(Berry)는 비주류집단의 문화적응 전략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로브(Grove)와 토비온(Torbiom)은 적응에는 사회적 것과 인지적인 것의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설명했다. 적응이란 행동의 사회적 적용성(social applicability of behavior)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원하는 성과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했으며, 인지적인 적응은 환경에 대한 자신

1) 국제결혼이민자의 국적별·성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국적	계	한국계 중국	중국 <sup>1)</sup>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기타
전체		122,025	36,040	31,749	26,622	5,702	5,311	2,701	2,317	2,051	9,532
남자		14,694	6,171	3,054	139	165	520	10	37	41	4,557
여자		107,331	29,869	28,695	26,483	5,537	4,791	2,671	2,280	2,010	4,975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2008. 12. 현재.

1) 한국계 중국인 미포함

의 견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명백한 인식'이라고 표현했다. 적응 단계를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보면, 초기 1단계와 4단계는 높은 적응의 수준을 나타내며, 2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로서 U자 형의 포물선을 아래로 그리는 가장 긴 단계를 나타낸다. 사전에, 그리고 적응기간 내에 어떠한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중 2단계는 대부분의 체류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기간으로,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합리화, 투사, 회피, 과잉)과 대응패턴이 나타난다. 이 단계는 4단계 중 가장 길다. 이러한 단계는 점진적 회복 단계인 3단계로 전환된다. 이 기간은 문화적 충격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다. 다음으로 문화적 적응 완성 단계로 접어들면, 타 문화에 대한 갈등 및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적응되어 간다(Grove & Torbiorn, 1985).

문화적응 유형에 대해 Berry(2005)는 문화적응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전략들은 두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다문화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그리고 행동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은 모든 문화적응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슈에서 나왔다. 첫 번째 이슈는 다른 민족문화와 정체성 유지에 대한 상대적 선호이며, 두 번째 이슈는 다른 민족문화 집단과 함께 현지사회에 참여하고 접촉을 갖는데 대한 상대적 선호이다. 즉 주류집단의 강력한 역할이 문화적응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문화적응을 일으키는 집단에 의해 유력하게 추구되는 동화는 '융광로(melting pot)'이며, 주변화가 강요되면 이는 배제로 불린다.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문화집단을 포함해서 전체사회의 특징으로 다양성이 수용될 때 통합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불린다. 이런 틀의 사용으로 개인과 집단간의 비교, 그리고 비주류집단의 사람들과 현지 사회간에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Berry, 2005).

적응 모델이 한국의 다문화가정 부부 가정생활 적응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생활 적응 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함'을 인식하고, '지속노력형', '불가피순응형', '긍정적 인내형', '변화시도형'과 '유동형' 등 다섯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조선족 여성들이 과도한 사회적 지지로 인해 한국생활 적응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긍정적 인내형' 유형으로 결과(최금해, 2007)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과정은 '혼돈과 갈등의 단계', '둘러보고 시도해봄의 단계', '조화로 위치를 찾음의 단계', '공동체 구성원으로 뿌리내리기 단계'로 유형화하였다(구차순, 2007).

정천석(2008)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 적응과 사회 적응 유형을 독립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전통적가치관 특성, 결혼만족도, 생활갈등, 갈등대처방식, 문화적응태도, 사회적지지 등 요인에 의해 적응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사회적 지지인 가족, 사회기관, 그리고 종교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 심리 적응 유형으로 나타났고, 사회 적응 유형은 종교적 지지가 높지만 가족이나 친구, 친척, 그리고 사회기관의 지지가 낮은 경우에 사회 적응 유형으로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2)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차별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이동석, 2002). 일반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적응 요인은 어떠한가?”이다.

자료수집은 C시의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 부부 9쌍(18명)을 대상으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남성 집단 포커스그룹 면접과 개별 면접, 여성 집단 포커스그룹 면접과 개별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 2인은 5년간 다문화가정 대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이 있으며,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면접은 기관의 실무자와 절차 및 접근방법에 대한 협의 후 포커스그룹 집단 및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면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의 관리자와 면접에 대한 협의를 한 후에 한국어교육 기관실무자와 함께 연구대상자의 면접일정을 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와 라포형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한 달 동안 한국어 강의에 보조자로 참여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협조를 얻었다.

1차 집단포커스 면접은 다문화가정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녁시간에 식사 후 면접 장소인 센터 소회의실 1에서 남편 9명을 연구자와 연구조사자 2명이 면접하였다. 동시에 센터 소회의실 2에서 연구조사자 2명이 이주여성 8명을 2개조로 나누어, 조별 4명씩 나라별로 포커스면접을 실시하였다.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여성 서포터즈와 한국어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완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 전 생활과 결혼에 대

한 기대, 그리고 국제결혼의 과정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1차 개별 면접은 어린자녀와 함께 참석하여 포커스집단 면접에 참여하지 못한 1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마친 후 한국어 교사와 함께 면접을 실시하였다.

2차 포커스면접은 연구자가 다문화가정 부부 9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가족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생활 적응 요인에 대해 경험을 나누었다. 연구조사자 2명이 함께 참여하여 이들을 관찰하였고, 이주여성들은 한국 가족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의 경험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이어갔고, 이를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교육 참여 후 남편을 대상으로 2차 집단포커스 면접을 실시하였다. 2차 개별 면접은 다문화가정 적응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2가족에 대하여 연구자와 연구조사자 2명이 한국어 교육이 있는 수요일 한국어 교육을 마친 후 교사와 함께 남편과 부인을 개별 면접하였다.

면접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mp3(Digital Voice Recorder)로 녹취를 하였고, 녹취 후 2일 이내에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각 사례에 대한 평가를 위해 면접자들과 기관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사례회의를 갖고, 사례별로 각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사례회의는 면접자들 각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원화(triangulation)하는 것으로, 정성적 자료를 참고하여 다문화가정 부부의 적응 요인과 관련된 평가를 하였다.

#### 2. 연구참여자의 특성

다문화가정 부부의 일상생활문화의 차이에

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별의 근거는 성, 연령, 신체적 특징, 인종, 장애 등의 자연적 범주와 출생, 민족, 국적, 종교, 언어, 사회적 지위, 빈부, 직업, 학력, 사상 등의 사회적 범주로 구분되어진다(박영도, 2004; 정천석, 2009).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사례번호	출신국적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과정	결혼기간
1	A-1	필리핀	여	33	고졸	교사	연애	18년
	A-2		남	41	고졸	운송업		
2	B-1	필리핀	여	36	대졸	영어강사	연애	4.6년
	B-2		남	43	고졸	엔지니어		
3	C-1	필리핀	여	37	고졸	전업주부	중개업체	1.3년
	C-2		남	56	초졸	운전업		
4	D-1	베트남	여	24	고졸	전업주부	친구소개	1년
	D-2		남	37	고졸	회사원		
5	E-1	베트남	여	21	고졸	전업주부	친구소개	1.7년
	E-2		남	37	대졸	회사원		
6	F-1	베트남	여	26	중졸	전업주부	친구소개	4.5년
	F-2		남	44	고졸	자영업		
7	G-1	우즈베키스탄	여	24	고졸	전업주부	친구소개	2.2년
	G-2		남	34	대졸	회사원		
8	H-1	인도네시아	여	34	고졸	전업주부	친구소개	7.4년
	H-2		남	44	고졸	회사원		
9	I-1	카자흐스탄	여	24	대졸	전업주부	연애	2.6년
	I-2		남	33	대졸	선교사		

서 오는 적응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여성 5개 출신국 9명과 남편(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참여 여성은 필리핀 출신 3명, 베트남 출신 3명,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출신이 각각 1명, 총 18사례로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면접 대상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C시에 거주하며,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21세에서 최고 36세의 여성으로서 20대가 5명, 30대가 4명이다. 출신국별로는 필리핀 여성 3명과 인도네시아 여성 1명이 30대이고, 나머지 출신국에서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은 33세에서 최고 56세로, 30대가 4명, 40대가 4명, 50대가 1명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평균 연령은 28.8세이며 남편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가 12.2세로서, 아내와 남편의 나이

가 7세에서 9세 차이가 3명, 10세에서 13세 차이가 3명, 16세에서 19세 차이가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의 학력에서 아내는 중학교 졸업 1명, 고등학교 졸업이 6명, 대학교 졸업이 2명이고, 남편은 초등학교 졸업 1명, 고등학교 졸업이 5명, 대학교 졸업이 3명으로 나타났다. 결혼과정에서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결혼한 경우가 5사례, 직접 만나 연애결혼을 한 경우가 3사례이고 나머지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한 경우가 1사례로 나타났다. 혼인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5사례, 4년 이상 5년 미만이 2사례, 7년 이상 2사례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 8사례는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1사례는 재혼가정으로 자녀와 따로 살고 있었다. 또한 부모를 모시며 살고 있는 경우가 6사례에 해당되었다.

## IV. 연구 결과

### 1. 나 신데렐라, 너 온달이에요!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동기는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을 배경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인들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본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가족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잘사는 나라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선택하였다. 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 대한 동경과 한국 남성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였다. 한편 한국인 남성들은 나이가 많아 한국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렵고, 동남아 출신 여성이 한국인 여성에 비해 순수하고 가부장적인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부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부인은 한국남성과의 결혼에서 신데렐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남편은 이주여성이 순종적이고 생활력이 강할 것이라는 온달의 기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오기 전에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거 시계 만드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회사거든요. 우리 한국에 와서 친정은 잘 살지도 않고 보통이에요. 엄마 아빠는 집에 계시고. 언니는 식당하고 있습니다(사례자 A-1).

고려인들 러시아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려 음식 반찬 만들어서 음식가게에 팔아서 돈 벌었어요. 지금은 엄마 혼자 돈 벌어요. 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학교 다니니까 조금 못 도와 드리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걱정 많이 해요. 지금요(사례자 G-1).

한국에 오기 전에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일

다녔어요. 하는 일은 애기 키우는 거요. 베이비시터요. 필리핀에서 농사하는 거 조금 힘든 거 같아요. 가끔 제가 도와주는 거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지금 우리 동생 많이 크니까 같이 도와주는 거요(사례자 B-1).

우리 신랑 왜 만났느냐고. 베트남에서 저기 회사사람이 그냥 소개했는데, 그 다음에 그 신랑 만났는데 얼굴 너무 좋구 마음도 좋구 그래요, 결혼했어요. 신랑 만났는데 베트남 남자와 사는데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 남자들이 맨날 술도 먹구 일도 안해요. 이렇게 싫어요. 다른 외국인도 그렇게 생각해요(사례자 E-1).

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결혼할지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러시아에 우리 코리아 남자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저희 언니도 러시아사람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러시아 남자 괜찮아요. 근데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성격도 틀리고 부모님도 다틀려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남자랑 못살 것 같아서. 지금 젊은이들 코리아 젊은이들 별로 성격이 안좋아요. 돈도 안벌고 공부도 안하고 돈도 많이 쓰면서 라이트클럽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아이구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많이 힘들거예요. 그런 생각하다가 결혼 안했어요. 한국남자들 좋아요. 돈도 벌고 가족들 위해서 잘해줘요. 그래서 아이구 내가 좋은 남편 됐으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친구가 한국말 잘했어요. 소개해줬어요. 남편을 너무 좋았어요. 처음 보니까 눈에 속들어왔어요. 생각나요(사례자 G-1).

국제결혼은 스스로 내 자신이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모, 동생과 의견차이 나고, 나이가 차서... 그럭저럭 30대 중반인데 (결혼)해야 되는데.. 더 나이 먹으면.. 베트남은 한국 생활수준과 비슷하고, 한국의 지나온 옛날 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서 하게 되었죠(사례자 D-2).

국제결혼을 하게 된 동기는 한국여성들은 너무 욕심이 많고, 오만하다고 생각되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아직

은 베트남 여성은 순수함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사례자 E-2).

## 2. 나, 너 너무 틀려요

“의사소통 어려워요” - 부인들이 가정생활 초기에서 겪는 적응의 어려움은 남편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적극적이며, 남편과 이웃의 도움으로 극복해가고 있다. 또한 본인이 한국인 남편에 대한 기대는 살림살이의 어려움과 남편과의 성격차이, 출신국 자연환경과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해 실망과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반면에 남편은 의식주와 생활방식, 그리고 풍습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한 채, 의사소통은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부인에게 기대한 순수한 마음과 책임감 등에서 현실에서 만족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한국 처음 왔을 때 느낌은 한국말도 몰랐어요. 조금만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해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맨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신랑 아침에 회사 가서 밤에 집에 들어와서 한국말 가르쳐줘요. 낮에 시어머니 가르쳐요. 밤에 남편 가르쳐요. 3개월 4개월 정도 한국말 좀 알았어요. 맨날 아줌마랑 시장가서 점심 그 아줌마도 같이 밥도 사먹고 한국말 빨리 배웠어요(사례자 P-1).

처음 도착할 때는 불안하죠. 다른 나라 오니까 한국이 진짜 맞는가. 연애할 때 좋은 거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결혼하고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성격도 안 맞는 거 많아서, 성격 같은 거. 어려운 것은 오자마자 같이 사니까 이렇게 잘사는 것 아니어서 많이 불편하죠(사례자 A-1).

한국에 멀리 왔는데요, 처음와서 공항 도착하자마자 인도사람인데 너무 추워요. 공항에서 너무 추워요. 필리핀사람과 같이 함께 한국 왔어요. 근데 우리 신랑 공항 안 왔어요. 근데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생각에 가끔 생각해(사례자 H-1).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너 엄마 아빠 떨어져서 한국 혼자 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 어떻게 생활할까 잘할거야, 안할거야. 어쨌던 한국(생활이 베트남과) 틀렸어요. 생각도 틀려, 말도 틀려, 생활도 틀려 한국 잘살 수 있나? 엄마, 이제 잘 할 수 있어요. 100%는 안되도 칠십 팔십 정도는 되요(사례자 E-1).

결혼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충만해요. 다만 1년이 안 되었을 때 한국언어에 힘들어 하고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지요. 결혼생활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마음도 착하고 순수하고 생각이 깊고 책임감이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다만 중요한 개인적 문제로 대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식주 등 생활방식과 풍습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는 비슷하지요(사례자 D-2).

“남자역할, 여자역할 너무 달라요” - 부인들이 가정생활 적응에서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권한과 성역할 구조에서 충돌하는 가부장적인 부부간 역할관계, 가사분담 등 가족구조와 성별차이이다. 또한 시부모님의 동화 강요에 남편은 모른 채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신호만을 보내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도와주지 못해 아쉬워하였다.

한국에서는 남자는 워더라구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남편이 음식 안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같이 밥하고 같이 도와주는데 안하더라구요. 전에는 말 안했지. (나중에)남편한테 직접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남편이 (엄지를 세우며)이거야. 엄마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가서 살면 도와



준다. 알더라구요(사례자 A-1).

여자든지 남자든지 필리핀에서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특히 어머니와 같이 살며는 (남편을) 함부로 하면 안되고, 반말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하늘같은 아들인데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잘해줘요(사례자 B-1).

한국에서는 남자는 위예요. 여자는 밑에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그렇게 해요. 남자는 위에 여자는 아래는 같아요. 서로 간에 같이 사랑하면 남자가 밑이면 안 되잖아요. 같이 실천하면 가정이 행복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잖아요(사례자 H-1).

처가식구와는 전화는 가끔씩 한 달에 6-7번 하는데 자꾸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게 하니 힘들고, 목소리만 듣고 얼굴 못 보니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고향에 전화하고 나서 힘들어 할 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사례자 D-2).

“경제적인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커요”-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가정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아내의 모국에도 경제적 지원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 부부 대부분은 남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부인은 전업주부로서 가족의 부양과 집안 살림을 하고 있으면서, 용돈을 모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 남편은 부인이 고향친구와 만나서 경제적 상황을 비교당할 때,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조를 때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에 아직 갔다 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갈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갈 거예요. 아주 좋아요(웃음)(사례자 G-1).

결혼을 한 후 베트남에 가지 못했습니다. 휴가 때나 갔다 올까 생각하지만, 아직 1년이 안됐는데, 집사람한테 2년째 되어서 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나중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돈이 없을 때 돈 달라고 할 때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적은 조금 있습니다. 고향 친구를 만나 얘기할 때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은 어둡고, 다른 집과 비교해서 저쪽 신랑과 서로 비교합니다. 자꾸 무얼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비교해서 요구하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사례자 D-2).

우리 신랑은 가끔 한 달에 20~30만원 우리 친정엄마 보내줬어요. 힘들어요. 그래 지금 우리 집도 없어요. 지금 전세 살아요. 시어머니도 아프니까. 어려워요. 조금씩 도와줘요. 설날 20만원, 30만원 조금씩 도와줘요. 친정엄마 보내줘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조금 보냈어요. 많이 못 보냈어요(사례자 F-1).

돈 보내는 거 우리 엄마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주시거나 안 쓰고 통장에 모아서 선물을 사거나, 내가 통장에 넣어서 100만원 보냈어요. 컴퓨터 사라고 주시면 내가 안쓰고 통장에 보태서 보냈어요. 내가요(사례자 G-1).

결혼 후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은 아직 현재 없습니다. 제가 집안을 위해 돈을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을 집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사례자 D-2).

결혼 후 아내의 가족에게 지원은 최근에 언니 병원비에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사례자 E-2).

“나라에 따라 예절이 너무 달라요”-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 부인의 문화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구성원간에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몇몇 특징을 중심으로 피상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언어의 차이, 음식의 차이, 예절 문화의 차이 등 제한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시어머니가 없는 경우에 시아버지를 모시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부인들은 웃어른을 대하는 방

식, 시어머니의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 요구에서 힘들어하지만 ‘사이를 좋게 하려고’ 차츰 맞추어 가고 있었다.

한국 너무 좋아요. 좋은데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말도 좀 몰라고 조금 무섭고 힘들어요. 한국생활 아직 잘 이해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맨날 친구 만나잖아요. 한국어 배우려. 지금 여기만 다니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사례자 E-1).

한국 부모님과 같이 모시고 살면 아주 힘들어요. 아침에 인사해야지 저녁에 인사해야지. 나가시면 인사해야 되요. 들어오시면 인사해야 되요. 그래서 이걸 아주 힘들어요. 이걸 이해가 안 돼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많이 안했어요. 나이 드신 분께 잘해주는데 그렇게 자꾸자꾸 인사안해요(러시아에서). 아주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구 그래도 사이가 좋게 하려고 혀가 몇 번 해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도 인사안하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냥. 아주 사이가 좋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꿨어요(사례자 G-1).

우리 시어머니 없어요., 시아버지만 계세요. 조금 힘들어요. 그 음식 뭐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밥 만드는데. 요리하는 거 힘들어요(사례자 C-1).

### 3. 우리는 이것이 필요해요

“남편이 최고예요, 아내가 고마워요”- 다문화가정 부인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생활양식과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적응을 하는데, 그들의 남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서 큰 힘을 얻게 된다. 다문화가정 남편들은 결혼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내를 위해 퇴근 후 함께 한국어공부를 도와주거나 집안일이나 함께 쇼핑을 하면서 도와준다. 또한 이들 가족구성원인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여성의 역할을 ‘집안살림’으로 제한하여, 집안에서 육아와 음

식준비 등을 전담하기를 원하며, 성역할 구조에서 전통적인 가족주의 형태가 이어져 가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친척이나 남편이, 가족에서는 시댁에서는 큰 편은 아니지만 조금씩 도와줘요. 음식 같은 거 알려주고 내가 모르는 거 알려주고 하나씩 팬찮아요(사례자 A-1).

저 우리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도움 많이 받아요. 아직도 처음에도 받고 지금도 많이 받아요. 저의 생각으로 우리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일 최고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려운 것도 있으면 싫어해요. 어떤 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진짜 소리 다시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더라. 엄마한테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어떻게, 조심해야 되죠. 잘못하면 화가 나야되죠. 그래서 ‘엄마, 엄마를 가끔 아주 좋아해요’, 그래요. 엄마는 아주 좋아했어요(사례자 G-1).

한국에서 남편 가족 분한테 같이 오래 살았으니까 어려움도 있고, 많은 도움 받았고, 한국어 많은 도움 받고, 같이 친구한테 도움 받고, 음식 만드는데, 아이 키우는 거, 제가 생활하는 거,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 아픈 거 이야기하고. 같이 서로 서로 생각하는 거. 한국에서 남편하고 시누이하고 같이 살아요. 만약에 시아버지 많이 도와줘요(사례자 H-1).

주말마다 도움을 주지만 늦게 집에 오니까 잘 도와주지 못해서 힘들어요. 저녁 8시 30분 정도 되어 집에 오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지요. 아내가 학교(센터) 갔다 온 날은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말을 알아듣는다던지 말을 하는 것은 가족,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 음식 할 때나 조카들이 말을 해서 많이 늘었어요. 센터 친구들이 있어 가끔씩 놀러오고 전화도 합니다. 한국어공부를 위해서 센터는 1주일에 2번 갔다 오면 무얼 배웠는지 물어보고, 학교에서 해오라고 하면 물어보고 책 펴서 도와줍니다. 집사람은 말이 빠르면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배운 것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반복을 합니다(사

례자 D-2).

아직 채 1년 정도 지나지 않아 센터에 가끔 참석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1주에 2번 정도 교육에 참가하기도 하며, 앞으로 센터 다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자 합니다(사례자 I-2).

“시어머니 아주 가깝고 소중한 사람예요”-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한국 문화’ 적응을 강력히 동화되도록 요구하지만, 며느리들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온 자국문화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해 한다. 한편 며느리들은 문화적 차이와 핵가족 형태의 가족구조에서 담당해야 할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역할 갈등에서 ‘시어머니한테 아주 가까운 소중한 사람’으로 차츰 부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결혼 전에 그때는 엄마랑 같이 살았잖아요. 엄마가 친정엄마라서 편하죠. 만날 싸워도 편해요. 우리 시부모님 자주 오잖아요. 잘해주면 좋아요. 여기(가슴) 아주 답답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님 아직 친어머니 아니잖아요. (평소에는)아주 좋아해요. 제가. 아주 잘해주셔서. 어머니한테 아주 가까운 소중한 사람 되고 싶어요. 엄마가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내가 미워서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항상 좋은 말 듣고 싶어요. 엄마한테(고조된 웃음) 내가 걱정되어서(그런 말씀을) 해요. 러시아 식구들이 그냥 잘 살아라구요.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라고. 처음에는 엄마가 제 엄마가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음에 한국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생활 보다가 시어머니님 보다가 지금 여기 괜찮아요(사례자 G-1).

“이웃, 사회 고마워요” - 다문화가정 부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으로부터 반찬, 김치 등 한국음식을 배우고, 인사도 나누면서 식사도 함께 하고, 외로울 때 정서적 지지를 받

고 있었다. 또한 부인들은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사회기관에서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 문화강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문화와 언어를 습득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기관의 교사로부터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양육이나 자녀의 학교 교육,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사회기관의 활동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시점에서 부인들은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어 습득이 더욱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옆집 우리 아빠 친구도 도와주고 반찬 같은 것, 한국음식 같이 나가서 먹고 가끔씩 시간 내고 저는 좋아하고요. 시간될 때 성당도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 만나고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사례자 A-1).

저희네 동네 아줌마, 할머니도 친구들도 항상 살다보면 같이 살아가면 힘이 될 거야. 잘 살아해요. 반찬 갖다 주고, 김치도 같이 담아 먹고 그래요. 어머니도 간장도 같이 다려먹고 좋아요(사례자 H-1).

동네도 아줌마도 친척들 저를 아주 좋아해요. 큰 도움은 안 받지만 여기 친정엄마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외로웠을 때 그냥 친구한테 말하면 그런 것도 도움이지요. 얘기하면 좋지요. 여기 답답하니까 여기(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하면 덜 답답하죠. 시어머니네가 공부해라고. 왜냐하면 내가 한국사람 아니라서 우리 아들도 나중에 한국 학교에 입학하면 초등학교나 뭐. 제가 한국말도 못하면 애기도 공부를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공부해라고. 그래서 애기도 봐주시고 이것 땀에 많이 신경 쓰세요(사례자 G-1).

뭐 사람이 돈이 아니더라도 힘으로라도 마음속으로 도와주면 좋은 거지요. 한국음식만 들고. 큰딸이 2학년 들어가니까 내가 모르면 학교 다니니까 물어보면 도와줘요. 건강센터에

서도 배워서 많이 알거 같아요.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 딸이 학교 다니면 엄마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요”. 모르면 서로 선생님한테 문자메시지 이런 거 보내서 물어보고, 밥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저는 우리 애들이 엄마 이거 뭐야 학교 다니면서 물어보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분이 많이 도와주니까(사례자 H-1).

“소망은 자녀가 공부 잘하고 가족이 행복했으면 해요”- 한국에서 가정생활 적응을 위해 문화의 차이, 언어 습득, 가족관계의 이해 등을 통해 많이 익숙해 졌지만, 가장 소망하는 것은 자녀가 좋은 다문화사회 환경 속에서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것이다.

한국말이나 문화에 대해 지금은 한국말 배워서 힘들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서 덜 답답해요. 문화도 편찮아졌어요. 처음보다 지금 많이 편찮아졌어요. 처음에는 우리 마누라 봐라, 예쁘다고. 친구들한테 부럽게 하려고,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남편 친구 만나도 혼자가요. 맥주마시고 싶어도(사례자 G-1).

애들 아빠가 운전하는데 항상 불안한 거 있거든요. 나중에 돈 조금 벌어서 운전안하고 조금 잘 사는 거 이런 거 바라고 있어요(사례자 A-1).

앞으로도 소망이 많이 있어요. 애기 태어나고, 꿈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우리 엄마도 한국인이니까 같이 살아야 하는데 외국인인니까 그게 걱정이예요. 애를 위해서 여기 생활이 어려워져. 한국에는 우리 아기가 있으면(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고민이에요. 애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국에서 (좋은 환경)만들었으면. 외국인한테도 도움이 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사례자 H-1).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보람되고 좋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 잘 듣고 안 된다는 것은 확

실히 안 되는 것을 알아 졌으면 좋겠습니다(사례자 D-2).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가 행복합니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은 자손 풍성하고 오손도손하게 행복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사례자 F-2).

아내와 결혼 후 부모님이 나보다 아내를 더 아껴줄 때가 행복합니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도 현재와 같은 생활과 기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사례자 I-2).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 9쌍, 1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 면접과 개별면접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적응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적응요인에 대하여, 국제결혼의 과정과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동기, 가부장제적인 가족구조, 일상생활 문화의 차이, 성역할의 차이, 한국문화로의 동화에 따른 변화와 사회적 지지 등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적응 요인은 다양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부부는 부부 개인의 특성과 가족의 특성, 지역 및 한국 문화 특성이라는 환경에 따라 적응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인들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동기가 새로운 기회와 한국 남성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선택을 하였다. 한편 한국인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동질적이고 혈통적인 기대와 가부장적인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부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주여성은 한국남성과의 결혼에서 신데렐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를, 한국인 남성은 이주여성이 순종적이고 생활력이 강할 것이라는 온달의 기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상업적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고려 없이 정보교류가 전제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이 결정되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정천석, 2008).

결혼적응 요인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선택에서 동질혼인 경우, 결혼 후 생활에 대한 합의 정도가 높고 서로의 가치관 및 역할이 수용되는 단계에서 결혼을 결정한 경우, 자신이 직접 결혼 상대를 결정한 경우, 부모와 친척이 지지한 결혼일 경우, 교제 기간이 길 경우에 결혼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김혜선·김영자, 1992; 이경애, 1993).

둘째, 실제적인 가정생활에서 다문화가정 부부는 의사소통의 문제, 생활문화 차이, 자연환경 및 경제적인 현실의 차이, 가부장적 태도, 가족원의 동화 강요, 가사분담 문제, 모국으로 경제적 지원 등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선행연구는 국제결혼 부부의 문제와 대응방식에서, 가정경제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계급화, 서로 다른 기대차이로 인한 갈등에서 대응방식이 나타나는데, 이는 각방쓰기, 가출, 이혼 혹은 이혼거부, 무관심, 만남의 제한 등을 통해서, 무조건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와 한국인 이웃에 대해 무관심으로 맞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강기정 외, 2009; 이혜경, 2005).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에서 장온정(2007)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남편의 전통적가족주의 가치관, 자문화전달태도 변인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독립적으로 영향력이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정천석·강기정(2007)은

이웃간의 교류수준, 부부관계 만족 수준이 생활만족과 심리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셋째, 한국생활에 적응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다문화가정 부부는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가족원인 시어머니의 강력한 한국문화로의 동화 요구에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중한 사람’으로 부응하기도 하였다.

중국조선족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홍기혜(2000)는 중국조선족 여성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 가부장적 제도와 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의 사회적 조건과 끊임없는 타협과 협상을 해 나가는 주체자, 사회적 행위자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윤형숙(2003)은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피해자 관점이 아니라 가족생활 갈등과 적응에 관해 일상적 저항과 적응전략을 구사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주체적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삶에 주관적 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로브와 토비온(Grove & Torbiorn, 1985)의 적응 4단계 변화(U자 형의 포물선) 중 2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로서 사전에, 그리고 적응기간 내에 어떠한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부분의 체류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기간으로,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과 대응 패턴이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겪고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차이,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심화되어가는 갈등관계를 중재해 나갈 촉매자의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로 간의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 해소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역사회 다문화관련 전문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들이 가정생활 적응에서 겪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정부기관과 관련학계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결

혼 초기 다문화가정 부부들에 대해 다문화이해와 한국문화이해,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교육, 일상생활의 정보제공,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취업안내 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차이 수용성을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이들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서, 다문화사회의 강점을 가진 사회통합의 자원으로 일익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기정, 김연화, 박미금, 송말희, 이미선 (2009). 건강가정론. 서울: 양서원.
- 2)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4(2), 61-80.
- 3)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정신(2006). 결혼이민자가족의 수용과 정착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82-110.
- 5) 김민정(2006). 결혼 이주여성 및 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 국회여성정책포럼 제9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43-46.
- 6)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 7) 김혜선, 김영자(1992).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적응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13-131.
- 8) 박영도(2004). 차별과 참여적 정의: 분배와 인정 패러다임의 대립을 넘어서,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4-19.
- 9) 법무부. www.moj.go.kr. 2007결혼이민자현황.
- 10) 변시민(1988). 사회학개론. 서울: 박영사.
- 11)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가족부.
- 12)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13) 서리나(2006). 한국여성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4), 87-107.
- 14) 여성가족부(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15) 유계숙(2005). 가족의 다양성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과문화 17(2), 211-233.
- 16) 윤형숙(2004). 국제결혼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 17) 윤형숙(2003).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18) 이경애(1993). 도시주부의 배우자 선택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19) 이동석(2002). '차별의 정의' 2002 법·제도 개선사업 자료집. 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원.
- 20) 이선주(2006). 문화적 다양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이주문제. 국제결혼 이주여성, 차별과 폭력을 넘어서. 국회여성정책포럼 제9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57-60.
- 21) 이해경(2005). 한국이주 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

- 학논집 22(2), 107-143.
- 22) 이해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23) 장온정(2007).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4) 정천석(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가.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편.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25) 정천석(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 유형에 관한 질적비교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6) 정천석, 강기정(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5-23.
- 27)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2.
- 28) 최금해(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 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29) 최금해(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44.
- 3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08). 결혼 이민자 체류현황. 2008. 12. 자료
- 31) 통계청(2007-2008). 인구동태(혼인). [www.nso.go.kr](http://www.nso.go.kr).
- 32)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33) 한국염(2006). 현장에서 본 이주여성 정책과 입법. 국제결혼 이주여성, 차별과 폭력을 넘어서. 국회여성정책포럼 제9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29-40.
- 34) 홍기혜(2000).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Bernard S. (et al.). (2003).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 empirical approach*.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36) Berry, J. W.(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37) Graves, T. D. (196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a tri-ethnic community*. *Southwestern J. Anthropology*. 23. 337-350.
- 38) Grove, C. J. and I. Torbiom. (1985). *A new conceptualization of intercultural adjustment and the goals of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9, 205-233.
- 39) Lazarus, R. (1976). *Patterns of Adjustment*. (Tokyo: McCraw-Hill Kogakusha, Ltd..
- 40) Winton, C. (1995). *Frameworks for studying families*. Guilford. CT. Duskin Publishing Group.
- 투 고 일 : 2009년 4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4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5월 22일